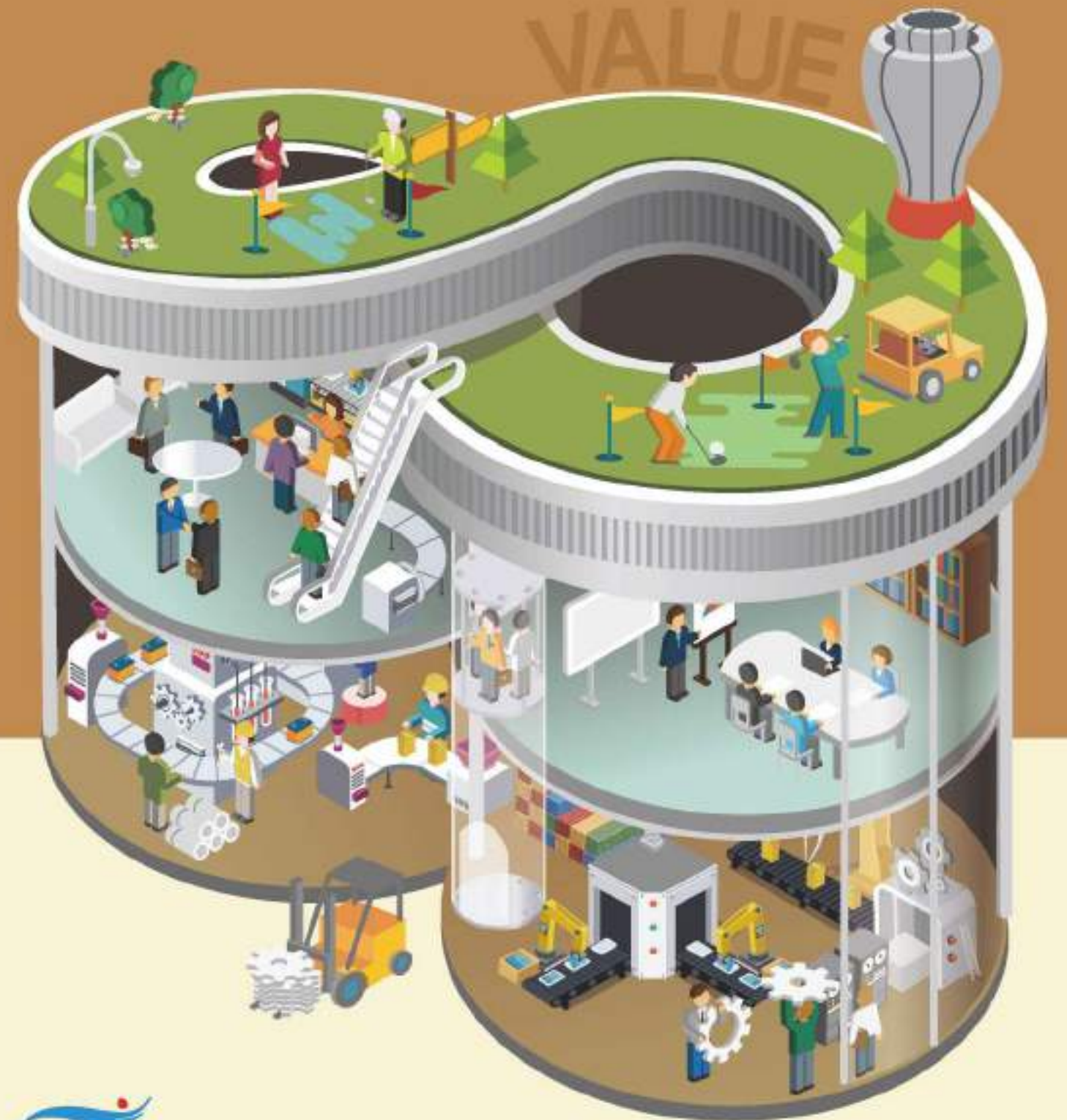


GFEZ Journal

Autumn 2016

VALUE



Cover Story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GFEZ
신시장 사업 발굴, 종역 투자 실현 등 우리가 만들어 낸 새로운 가치는 광양만권의 미래입니다.
GFEZ는 번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무한한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도시입니다.

새로운 나를 만드는 오늘의 가치

끊임없이 그리고 빠르게 바뀌어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나요? 사람들은 쉽게 익숙한 것에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변화를 막연히 엄청난 것, 두렵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쉽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나를 만드는 변화는 내일 혹은 나중에 아닌 지금 여기 오늘의 삶 속에 있으니까요.

知

- 04 61th Theme 방범이의 가족
- 06 Theme Story 가치 창출과 혁신으로 가는 길, 가치공유

通

- 08 GFEZ HOT Topic 남해안의 보석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로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 10 GFEZ Brief News 광양청 10대 뉴스
- 14 CEO Column 혁신 역량 강화로 광양만권의 가치를 높이는 희망파트너
- 16 GFEZ View 단행된 자체로 광양만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 서민용 의정
- 18 GFEZ People 미래를 위해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다 GSDK
- 22 Invest in GFEZ 물류·연구·개발 업무기능과 고품격 주거기능의 조화
광양복합업무·웰빙카운티단지
- 24 Local News 주요기관 소식

言

- 26 Trip 어느 가을 마주한 내 마음의 쉼표 광양
- 30 Festival 풍으로물 가득한 가을의 정취를 담은 축제 속으로
- 32 Work 소감형 직장인으로 거듭나는 업무매질 팀
- 34 Economy 알아두면 돈버는 유익한 보험서비스
- 36 GFEZ Cartoon 여수 화양지구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어요!
- 38 독자후기 & 이벤트 SNS

- 08 남해안의 보석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로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 14 혁신 역량 강화로
광양만권의 가치를 높이는
희망파트너
- 18 미래를 위해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다
GSDK
- 22 물류·연구·개발 업무기능과
고품격 주거기능이 조화
광양복합업무·웰빙카운티단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GFEZ(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는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2009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배후수요의 산업연프과, 각종 규제 완화 및 자선정책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갖춘 한국 경제 자유구역의 선두주자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명 Vol. 6
발행인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편집인
(주)GMS
발행일
2016년 9월 20일 (총권 제61호)
발행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061-760-5091~3]
간행물 등록번호
한남, 제100035
출판사
www.gfez.go.kr



밥벌이의 가족

밥벌은 내 밥의 끝이다.¹⁾

어느 석간신문 귀퉁이에 상린 한 중의 시가
내 가슴을 상벌히 열린다.

세상의 수많은 가장이 받은 뽕이겠다.
자식 입에 밥 한 숟가락 더 넣기 위해 치려야 할
이 얼마나 숭고한 형벌인가?

그대의 젊음 시절 품었던 꿈과 이상들은
시퍼럼 멍이되어, 그렇게 가슴속에 묻혀놓고
당신은 그 쓰디쓴 멍에를 기꺼이 받아들이는구려.

¹⁾ 시집 《42년분을 읽는 밤에》(원지나 문 성원정)의 시 '밥벌'

밥벌은 달게 반을지엄정

밥벌레는 마시게나

내 밥상에 탐욕스런 찬하나 덜고,
내 자식, 학원 하나 덜어도
사람나룻 하게끔 하능 터이니.

당신의 존엄과 가치를
한 그릇의 밥과 바꾸지는 마시게나

모름도 참작없는 전장터로
기꺼이 나서는 충군길 태어날 비둘치
그 그림자 끝자락에 기대어

숭고하고 거룩한 당신의 가족이기를
하늘의 한 귀퉁이에 두 손 모아 방어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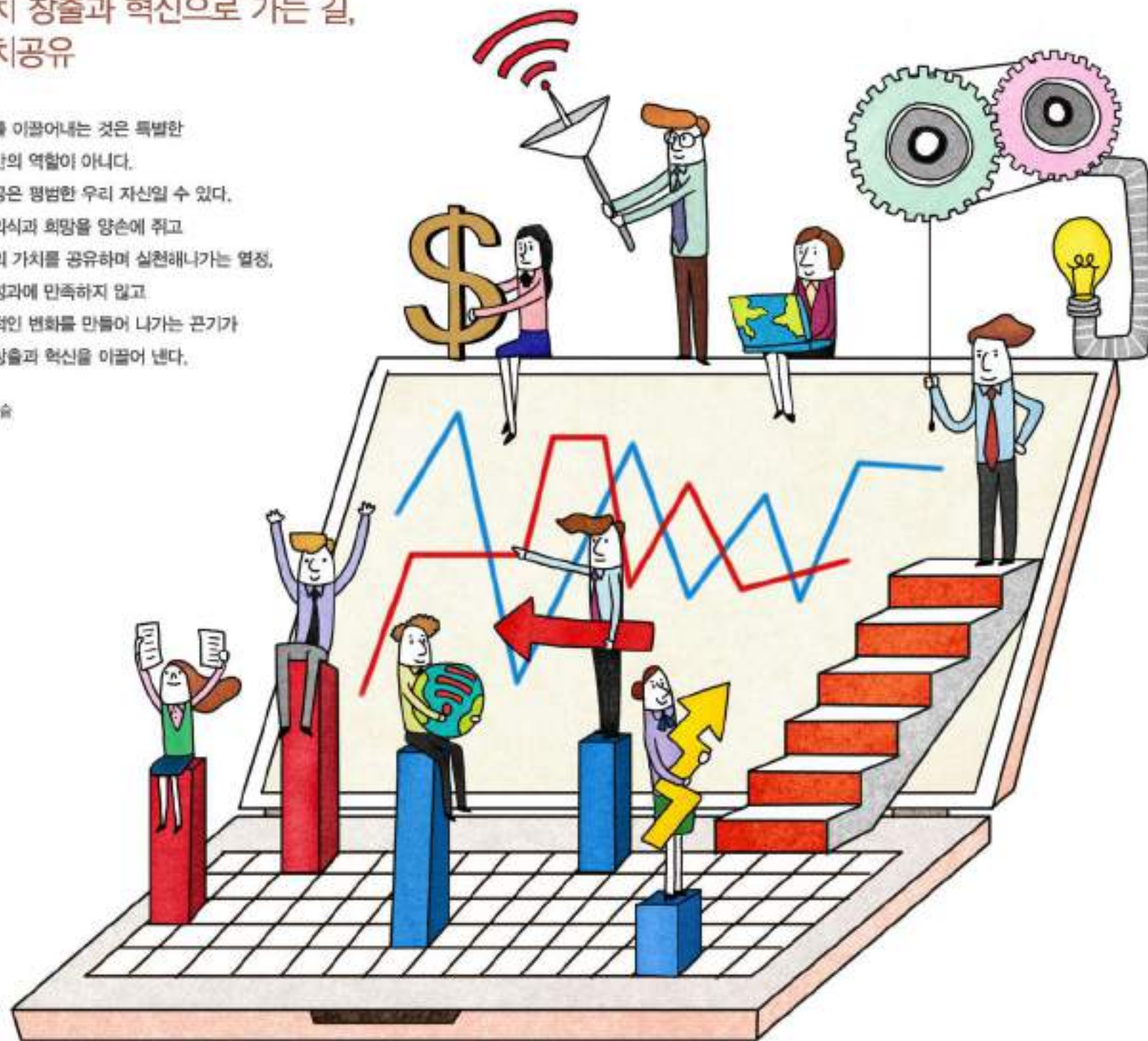


Theme Story.

가치 창출과 혁신으로 가는 길, 가치공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특별한
영웅만의 역할이 아니다.
주인공은 평범한 우리 자신일 수 있다.
위기의식과 희망을 양손에 쥐고
조직의 가치를 공유하며 실천해나가는 열정,
단기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끈기가
가치창출과 혁신을 이끌어 낸다.

글 안이슬



조직의 핵심가치를
공유할 때, 조직구성원들은
일을 통하여 경제적 수입뿐만 아니라 보람과 공지를
느끼게 된다.

조직의 핵심가치를
공감하고 이를 중요시
하는 직원일수록 자신이
속한 조직의 훌륭한
아이콘이 될 수 있다.

화물 수송 회사인 옐로우 프라이트(Yellow Freight)사는 90년대 말, 트럭 운송업의 퇴조로 수익 악화 및 잦은 파업을 맞이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했다. 당시 구성원들은 자사를 단순히 장거리 수송업체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CEO로 부임한 빌 졸라스(Bill Zollars)는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새로운 가치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경쟁상대는 스타벅스(Starbucks)다.'라는 새로운 기업 가치를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화물 수송업체가 커피전문점을 경쟁 상대로 선정한 이 파격적인 사례는 직원들에게 '운송업'이라는 기존의 가치에 '서비스업'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게 되었다. 결국 기업의 미래가치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한 옐로우 프라이트(Yellow Freight)사는 성공적인 서비스 혁신으로 포춘 500대 기업에 속하는 세계적인 화물 수송업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

구성원에게 자부심을 선사하는 가치공유의 힘

조직의 핵심 가치를 구성원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은 구성원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와 구성원들이 중시하는 가치관이 일치할 때, 조직과 자신을 하나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공유를 통한 가치관의 동질화는 구성원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어렵고 모호한 의사결정 상황에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

미국의 제약업체인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이나 독일의 과학기술 선도기업인 머크(Merck)사가 윤리 경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이유도 바로 구성원들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철저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짐 콜린스(Jim Collins)와 제리 포라스(Jerry Porras)는 50년 이상 시장환경과 리더십 변화에도 계속해서 좋은 재

무적 성과와 사회적 명성을 유지한 비전기업의 특징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전기업들은 단순한 이익창출을 넘어선 존재이유와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존재 이유와 핵심가치를 공유할 때, 조직구성원들은 일을 통하여 경제적 수입뿐만 아니라 보람과 공지를 느끼게 된다. 또한 공유된 존재 이유와 핵심가치는 조직구성원들에게 긍정적 심리와 내적 동기를 유발하여 업무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촉진한다. 이는 지식창출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치창출과 혁신은 영웅만의 역할이 아니다

조직의 핵심 가치를 공감하고 이를 중요시하는 직원일수록 자신이 속한 조직의 훌륭한 아이콘이 될 수 있다. 모든 직원들이 기업의 핵심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만든다면, 조직은 직원들에게 더욱 큰 권한을 부여하고 리더십 지체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가치공유가 뛰어난 조직은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빨리 다가갈 수 있다. 조직은 가치의 강력한 공유를 통해 하나가 아닌 수많은 리더를 갖게 되는 셈이다. 한영의 위대한 영웅이 아닌 기업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수많은 현장직원들의 열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가치창출과 혁신이 가능한 것이다.

기업구성원이 가치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밖에서는 이미 달이, 안에서는 병아리가 동시에 쪼아야 부화한다는 사자성이 출타동시(同時)처럼 리더와 구성원들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모든 조직 전반에 변화의 불꽃이 타올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의 모든 층위에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성과를 추적하여 확산하는 것은 기업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가치의 불씨다. 작은 성과라도 사례를 공유하고 좋은 관행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는 활동과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태도를 조직의 DNA로 심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관광레저와 해양스포츠,
휴양기능을 갖춘 복합관광레저단지

남해안의 보석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로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여수시 화양면 일대에 개발중인 화양지구는
산과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지형으로
해양과 산악스포츠, 체험관광, 쇼핑 등
종합레저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 중이다.



“관광·레저·휴양의 기능을 갖춘 복합관광레저단지 화양지구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화권 자본 등 외국 투자 증가가 기대되며, 화양지구 개발 역시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양지구는 일조량이 풍부한 해양성 기후대로 기온의 연교차가 적어 겨울철에도 늘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골프 등 레저·휴양이 상시 가능한 곳이다. 온화한 기후와 더불어 맑은 공기, 수려한 자연경관은 화양지구의 가치를 더욱 끌어 올리는 매력 포인트이다. 일상해양산업(주)은 이러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디오션 골프장(18홀)과 연수원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50실 규모 콘도개발 등 직접개발 면적을 확대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총 1,200억원이 투입되는 콘도개발은 2017년 상반기 착공하여 2019년 6월까지 완료하고, 콘도 분양성과와

관광시장 변화추이를 분석한 후 호텔, 상가, 골프장(9홀 규모) 등 관광·레저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는 이 지역에 중화권 자본 등 외국투자를 유치하여 화양지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를 꾸준히 설득하여 여수 화양지구를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받았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가 지정한 부동산투자상품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와 동시에 경제활동이 자유로운거주(F-2)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5년 투

자유지 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행기간은 2016년 7월 11일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며 투자대상은 휴양 콘도미니엄, 생활숙박시설, 별장, 관광펜션 등이다. 교통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는 화양지구는 여수공항에서 30분, 여수엑스포역·여수항에서는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철도, 항공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접근성이 좋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국지도 22호선(여수 소라~화양)과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고흥작금~화양) 11개 연륙·연도교(L=42km)가 2020년 완공되면 남해안 일주도로를 통한 화양지구의 관광수요가 폭발적으

로 늘어나 남해안 관광달러스터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다도해의 보석 화양지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까지 실시한 국제공모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화양지구 공간구성을 구체화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동안 투자의향을 표명한 소규모 투자자의 투자실행을 유도하는 등 규모있는 계획적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화양지구가 세계인이 찾는 관광·레저·휴양의 중심지로 개발되면 여수 등 남동권 관광산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

BUSINESS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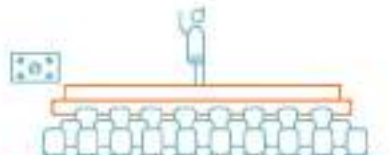
제2회 광양만권 CEO포럼 개최

광양만권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로 동반성장 계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지난 6월 28일 제2회 광양만권 CEO 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광양경제청 권오봉 청장을 비롯해 울촌산업단과 해룡산업,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CEO와 전남 테크노파크,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광양만권 입주기업의 국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공유와 입주기업 간 상호소통을 물론, 기업 CEO와 유관기관 간 파트너십 구축을 목적으로 개최된 포럼은 “중소·중견 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청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의 주제 강연 후 최근 광양만권 산업동향과 관련한 중소기업 자금 및 고용지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김병일 전남 테크노파크원장은 “최근 브렉시트와 조선

업 구조조정 등 가뜰이나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으며,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광양만권



CEO 포럼은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의 교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한 기업경영 전략 구상 등 지역의 기업·연구소·정부 간 협업의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BUSINESS

02/

2016년 상반기 투자유치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권오봉 광양경제청장

“투자유치 목표 달성 위해 총력” 다짐

지난 6월 29일 권오봉 청장 주재로 투자유치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투자유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현재까지의 투자유치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전략을

점검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광양경제청은 그동안 세계경제의 불확실 요인과 국내 조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투자유치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기업 유치, 화양 지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추진 등 투자 유치 여건 조성에 힘쓰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왔다. 이러한 결과 6월 말 현재 6,063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하반기 중에는 금년도 목표 2조 3천억 원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권오봉 청장은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했던 세계경제가 최근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권역의 고유한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연구기반 조성, 투자 애로 요인 해결 적극 지원 등을 통하여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액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BUSINESS

03/

제11회 「가치공유 회의」 개최

James Rhee 전 코트라 전문위원
‘밖으로 나가면 세계가 보인다’ 주제 특강

광양경제청은 지난 7월 4일 제임스 리 전 코트라 전문위원을 초청해 제11회 「가치공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직의 소통과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초청 강사로 나온 제임스 리는 ‘밖으로 나가면 세계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해외 76개국 배낭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하고, 세상은 보고 듣는 만큼 넓어진다는 진리와 소통에 초점을 맞춘 강연으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날 회의는 소속 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특강과 함께 공식자 청렴 위반사례 및 행동강령 숙지도 평가 체크리스트 등 청렴 나눔 자료를 공유하였고, ‘GFEZ 저널 테마 시(詩) 공모’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가졌다.



BUSINESS

04/

여수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화양지구 본격적 개발 정신호 커지다

광양경제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관광·레저 개발사업지구인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화양지구가 7월 11일자로 법무부 고시에 의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다고 밝혔다.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은

개발 담보상태에 있는 화양지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법무부의 화양지구 현지실사, 투자이민협의 회 안건 상정 및 결정 등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여수 화양지구 법무부고시의 투자 대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 부동산 중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편선,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이다. 영주권취득을 위한 투자기준금액은 5억 원 이상이며, 화양지구 투자이민제지역 시행기간은 2016년 7월 11일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5년간이다.

BUSINESS

05/

광양경제청,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하반기 GFEZ 중점 추진과제
추진방안 논의

지난 7월 19일 하반기 GFEZ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양경제청이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개발 투자 유치·전략산업·금융분야 및 기업인 등 외부 정책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하반기 4개 분야 16개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듣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분야별 주요 논의 과제는 ▶지역개발 기반 확충을 위해 경도 경제자유구역 편입요건 확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에 따른 화양지구 개발, 선월광양복합업무유휴지관리 단지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의 확실한 추진을 위해 세종·해운 황금·대송산단 조성 관련 과제를 ▶투자유치 분야로는 기능성화학소재 및 뿌리산업 유치, 중국 및 서구권기업 투자유치 방안을 다뤘다. 또한 ▶기업지원 분야인 1기업1도우미제와 근로자 건강돌봄이 운영, 울촌산업단 공공시설을 무상공유, 광양만권 CEO 포럼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광양경제청 정책자문위원회는 2014년 처음 구성된 이후 이번에 제6회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광양만권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중장기 발전 목표와 정책 방향 제시 등 제반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USINESS

06



일본기업 광양만권 산업현장 시찰 및 투자유치 박차

세종산단 외국기업전용단지 조성 설명 및 한·일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협의

광양경제청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기업 20여 개사를 대상으로 광양만권 산업현장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동 시찰단 참가자들은 기계·자동차 부품제조, 정밀화학, 신소재 가공 및 제조분야 기업들로 광양항, 여수 화학단지 및 울진산단과 현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세종산단 등을 둘러보고 광양만 권의 우수한 투자여건에 깊은 관심을 표명 하였다.

금번 산업시찰에는 지난 5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특수도로 제조업체 <히테크노피아>와 LED 제조업체인 <히피티씨> 관계자도 참가하였다. 이들 기업은 금번 하반기 중에 외국인 투자신고와 한국법인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일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을 통하여 신규 합작사업을 전개하려는 기업들도 다수 참가하여 산업현장을 시찰하였다. 동시에 양국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기술과 자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방안을 모색 하는 상담회도 진행하였다. 비즈니스 매칭으로 일본기업들은 해외진출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며 판로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한국기업도 일본기업과 협업을 통하여 기술개발과 수출이 가능하여 상생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광양경제청은 세풍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기능성 화학소재단지 내 R&D센터 설립을 비롯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바이오패키징 클러스터 구축으로 일본 등 외국기업 투자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BUSINESS

07

GFEZ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분양 공고

대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13필지 814,160㎡ 분양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배후 산업단지가 될 철강 및 조선산업의 지원 역할, 경남 수송기기분야 제조업의 중심기지 역할을 맡게 될 대송산업단지의 산업시설 용지 분양이 지난 8월 개시되었다. 사업시행자인 대송산업개발(주)에 따르면 2018년 2월에 준공 예정인 대송산업단지는 현재 55% 공정이 진행된 상태이며 침체되어 있는 하동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성공적인 단지 조성 목적을 달성하고자 투자자 및 실수요자 조기 유치 방안으로 선분양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분양면적은 산업시설용지 13필지 814,160㎡이며, 분양 분양가격은 240,500원/㎡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대송산업단지는 연간 1,820만 톤의 제강능력을 보유한 세계최대 철강단지인 포스코 광양제철과 연 400KW의 전력을 생산하는 하동화력이 안정하고 있어 원부자재 공급 및 전력수급이 편리한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BUSINESS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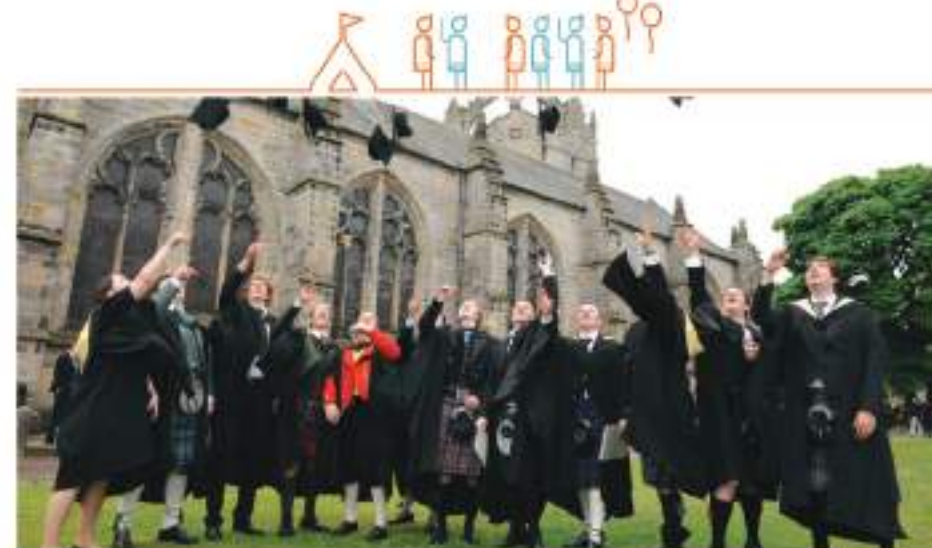
광양경제청-주광주중국총영사관, 기업교류와 투자확대 논의

광양경제청 권오봉 청장은 지난 8월 5일 광양만권을 방문한 쑨시엔위(孫顯宇)駐光주중국총영사와 '광양만권과 중국 간 무역 및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중 FTA를 활용한 무역과 투자 확대, 재중국 홍보·상품전시관 개설,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연계한 해상패리 노선 개설 등 광양경제청의 對중국 현안사업을 폭넓게 논의했으며, 총영사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과 쑨시엔위 총영사는 "앞으로 전남 동부권에도 중국인들의 왕래

가 잦아지고 기업교류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자"는 데에 상호 의견을 같이하였다. 쑨시엔위 총영사는 권오봉 청장과 면담을 마친 뒤, 최근 광양항 배후부지에 1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유마용 조제분유 생산예정인 중국기업을 방문하여 공장 시찰 및 협조 사항을 청취하였다.

BUSINESS

09

교육부, 에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설립 승인
해양플랜트 설계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으로 조선해양산업 재도약 준비

광양경제청은 8월 8일 교육부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하동 갈사만조선해양산업 단지에 들어설 에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설립 승인을 최종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에버딘대학교 유치 배경은 현재 조선산업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설계엔지니어링 원천기술의 전적인 해외의존과 20%를 밑도

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의 근원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양플랜트분야 1위 대학인 에버딘대학교의 한국캠퍼스가 운영되면 현재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설계엔지니어링 전문 인력 양성, 북해 유전지의 해양플랜트 설비 운영 경험 공유, 신해저 자원 개발 연합체(Subsea UK)와의 기술지식 정보공유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에버딘대학교의 한국 캠퍼스 설립은 현재 국산화율 20%대에 머물러 있는 해양플랜트 각종 장비·기자재의 초기 국산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 교수진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인 명문 에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하동 갈사만

조선해양산업 인프라 구축은 물론,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국에 가지 않고도 세계적인 수준의 해양플랜트 분야 전문지식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양플랜트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게 되어 조선해양산업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BUSINESS

10



광양경제청, 2개 기업과 380억원 투자협약 체결

광양경제청은 8월 10일 카이푸란성에너지 한보 유한공사(이하 카이푸 유한공사), 우리산업(주) 등 2개사와 380억 원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카이푸 유한공사는 세종산단 외국인투자지역 33,000㎡ 부지에 3천만 불을 투자하여, 토양개량 및 발전소 연료용인 Bio-Char(바이오-숯) 생산 및 무산소 저온 열분해 설비(Bio-Hub) 제조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중국자본 100%를 투자하는 이 회사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를 활용하여 내수 및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지난 8월 4일 2,500만 불의 FDI 신고를 마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첨단철강판재 생산 및 금속원료 재생 기업인 우리산업주식회사는 울진산단 19,835㎡ 부지에 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미래를 여는 산업·물류 중심 도시 GFEZ!

혁신 역량 강화로

광양만권의 가치를 높이는 희망파트너

월례 가치공유회의를 통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들의 창의적 역량을
결집하고,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관내 입주기업CEO와 우리청 직원들이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의 도시와 경쟁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
구역청의 성공비결은 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좋도록 '지
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국내 2위의 광양항, 화
학·철강 산업기반, 천혜의 자연환경 등이 우리 지역의 경
쟁력이지만 여기에 더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중 가장 원천적인 동력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담
들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공동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가치를 향해 생각과 행동을
함께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청이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가치공유 회의

를 개최해온 것도 좋은 생각과 지혜를 공유하자는 취지
입니다. 가치공유회의는 우리의 고적인 예비투자자, 입주
기업, 개발사업자, 지역주민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가치를 지향하며 남의 생각을 듣고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입니다. 자기 혁신을 통해 한정된 인원과 자원의 제
약을 넘어서서 빠르고 친절하고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고객감동의 GFEZ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열정으로 최근 여수 화양지구가 '부동산투자이민
제 지역'¹⁾으로 지정되어 중화권 자본 등 외국투자 유치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계부처를 설
득해 얻은 성과로, 광양만권 일대의 개발 가치가 획기적
으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지난 12년 동안 금융조달(PF)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으로 사업 추진
에 어려움을 겪었던 세종산단 조성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타
당성이 인정되어 총 사업비 602억 원 규모의 공사가 진
행되고 있고 금년 후반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
다. 이곳에는 기능성화학소재단지, 바이오패키징소재단지,
외국인 전용 투자지역이 조성되어 우리의 미래먹거리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세종산단에는 융복합소재실
증화 지원센터가 입주하여 신소재의 R&D 평가, 인증을
근거리에서 지원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가치와 성공 가능성
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광양만권 내 하동 갈사만 해양산업
단지에 들어설 에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설립을 승인한
것도 또 하나의 가치실현입니다. 북해 유전지 중심도시
에버딘에 위치한 에버딘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를 5명이
나 배출한 영국 내 해양플랜트 분야 1위 대학입니다. 에
버딘 대학이 설립되고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해낸
다면, 현재 조선산업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설계엔
지니어링 원천기술의 전적인 해외의존과 20%를 밀도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산업과 물류의 국제적 중심지 뿐
만 아니라 행복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품격과 가치
를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 전용 의료
기관 설립도 그 중 하나입니다. 배후도시 정주 여건 개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레저 기반 확충 등 광양만
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 확보 또한 앞으로 우리
청이 꼭 이뤄야 할 목표입니다.

그동안 광양만권의 개발이 지연된다는 실망과 불만도 있
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구역에서 개발과 사전절차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할 수 있
다는 신념을 가지고 힘을 모으면 실현된다는 실험이 지금
광양만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 4강진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

딩크 감독의 리더십이 작용했지만, 붉은 악마의 간절한
염원이 없었다면 4강진화 달성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
마침 폐막한 리우 올림픽에서도 종합순의 8위를 차지하
며 2004년 이후 10위권내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남자 펜싱 예페 박상영 선수의 역전승을 이
루어 낸 집념, 국가대표 선발 탈락이후 4년만에 금메달
을 획득한 여자 양궁 장혜진의 끈기, 패자부활전에서 팔
이 빠진 부상에도 동메달을 딴 레슬링 김현우의 투혼 등
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청도 열정과 집념, 끈기, 투혼으로 혁신역량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광양만권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데
실험을 기울여 기업투자가 성공하고 생활이 행복한 도시
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 외국인이 호텔, 진료, 일반학박사실 등에 3개월을 3년간 투자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단합된 자세로 광양만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

서일용 의장



제10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통합민주당 전남도당 대변인
제9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사)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장

서일용 의장

Q GFEZ 조합회의의 역할과 구성이 궁금합니다.

A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조합규약 및 조합규정 제·개정안, 예·결산안,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조정 등 경제청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광양만권 사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과 시책에 관한 법률,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양경제청이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향 제시, 자치 규정의 제·개정 등 입법 활동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조합회의 의장단이 새롭게 조직되었습니다. 조합회의의 운영 방향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A 광양만권역 지역민들이 광양경제청에 가장 우선으로 요구하는 것은 경제청 본연의 설립 취지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광양만권 경제의 동반 성장일 것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조합회의는 조합회의 본연의 업무인 광양경제청 사

업의 법률적, 정책적 타당성을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되 과다한 규제와 간섭보다는 광양경제청의 역동성 있는 업무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Q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성장발전을 위해 특히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A 저는 재선에 이르는 도의회 의정활동과 도시계획, 문화관광, 행정 등 전문 분야를 고르게 연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문화관광전문가로서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광양만권이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신산업·물류·관광의 허브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Q 의장님께서서는 전남도의회원으로도 활동을 하시면서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바라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와 의견이 궁금합니다.

A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하였다는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5개지구 21개 단지가 물류와 관광, 생산기능 등의 특화단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국가산단, 포스코광양제철소 등 비교우위의 산업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으며, 기업친화적 환경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투자 가치가 뛰어난 경제자유구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강점을 배경으로 상당한 수의 기업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권오봉 청장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유치 및 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광양만권은 보다 활기 넘치는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도시로 성장할거라 기대합니다.

Q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최대 현안 과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언해주신다면?

A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태어난 내·외부적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신산업·물류·관광의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배후단지를 적시에 개발하며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해운조선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시작된 국내 기업들의 환경 변화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화양지구의 경우 전체 개발면적 99㎢(302만평) 중 녹지보존지역 5.9㎢(180만평)을 제외한 순개발면적 40㎢(122만평)을 개발하고 있으나 현재 골프장, 연수원 등 1.3㎢(41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2.68㎢(81만평)은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역동적인 변화를 통해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심리를 제공하고 이를 연결고리 삼아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Q 의장님께서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셨던 만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합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위원장님의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앞서 언급했듯이 조합회의 본연의 기능을 하면서도 경제청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각 지역별로 참여하고 있는 조합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지역별 현안과 경제청의 발전전략이 제대로 융화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문화관광전문가로서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광양만권이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신산업·물류·관광의 허브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강분진에서 아연을 추출하는 친환경 기업

미래를 위해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다

GSDK



연간
110,000

재활용 설비 (년회전)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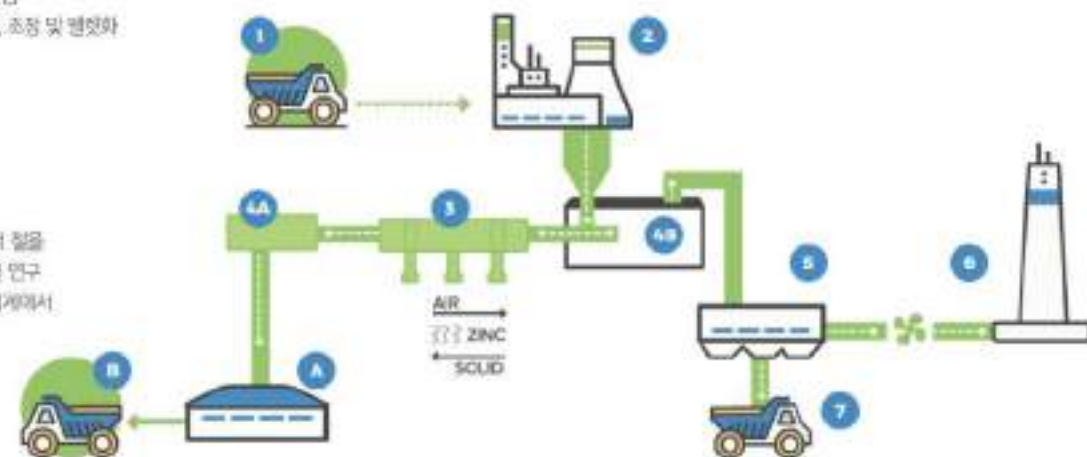
2017년 처리량 (도톤·톤)

90,000

VALUES : Quality(품질) / Discipline(규율) / Fighting Spirit(투지) / Loyalty(충성) / Responsibility(책임) / Simplicity(정직) / Teamwork(팀워크) / Versatility(다재다능)

웹즈킬론 과정

- 1 전기로분진(EAFD) 운송
 - 2 질온 공급원로의 혼합, 조정 및 열처리
 - 3 웹즈킬론 공정
 - 4A 냉각 공정
 - 4B 가스 침전 공정
 - 5 가스 처리
 - 6 정화 공기 배출
 - 7 웹즈 산화아연
- A GSDK는 WIP으로부터 철을
회수할 수 있는 공정을 연구
B 도로공사 및 시멘트 업계에서
WIP활용 가능



‘제강분진’은 철강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이다. 2015년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철 100톤 생산 시 약 1.5톤의 분진이 발생하며 분진은 고농도의 아연과 철을 함유하고 있다. 국내 제강분진 발생량은 2005년 31.6만 톤에서 2014년 38.3만 톤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기로 EAFD(Electric Arc Furnace Dust)는 전 세계 아연 제련소에서 산화아연을 얻기 위한 원료로 재활용된다. 여러 대체 기술 연구가 존재하지만, 전통적인 웹즈 킬론(Webz Kiln) 공법은 전기로 제강분진으로부터 조산화아연을 추출하는 가장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처리 방법이다.

2014년 올손산단에 들어선 지에스디케이(GSDK, Global Steel Dust Korea Ltd)는 웹즈 킬론 방식으로 제강분진에서 아연을 추출하는 친환경 공법의 선두주자이다.

GSDK의 공장설비는 최첨단 설비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분진 무배출, 무공해가 유지되도록 고안되어있다. 연간 110,000톤 이상의 전기로분진을 처리할 수 있어, 환경보호와 미래 가치 창출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GSDK는 멕시코의 프로맥스 그룹(Promax Group) 소속으로, 전기로분진 재활용 업계에서 30년 이상의 역사와

경험을 가진 징크 나시오날(Zinc Nacional, S.A.)의 자매 회사이다.

1962년에 설립된 징크 나시오날은 아연 화합물과 관계 재활용 생산을 전문으로 한다.

오랜 경험과 최첨단 전기로분진 처리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GSDK는 올손산단과 광양만권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이 잘 확충되어 있어 물류이동이 용이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우리의 오랜 경험과 진보된 기술로 국내 제강분진 재활용 산업의 중추적 역할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글로벌 그룹인 프로맥스는 멕시코, 미국, 콜롬비아, 터키 등 여러 국가에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으로 진출한 계기는 무엇인가?

프로맥스 그룹은 산화아연(zinc oxide) 시장 수요 증가로, 새로운 사업처를 찾고 있었다. 멕시코와 미국 시장은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렸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철강 생산국 중 하나인데, 이는 우리 플랜트에 필요한 원료 수급에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작용했다. 또한 한국은 좋은 문화와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다.



GSDK의 주요 생산물은 무엇인가? 생산물은 어디에 활용되는지?

우리의 주요 생산물은 산화아연(zinc oxide)이다. 한국에서 생산하려는 것은 기존의 산화아연보다 더 정제된 것으로, 순수 산화 아연 또는 정제 산화아연이라고 부른다. 정제 산화아연은 매우 많은 산업에 사용된다. 비료와 같은 농업분야에도 사용되고, 동물 사료 분야와 페인트, 세라믹과 등 업계에도 다양하게 사용된다.

GSDK는 '웰즈 킬본' 공정기술을 이용해 전기로 제강분진을 아연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이 공정의 장점과 특징은 무엇인가?

웰즈킬본은 멕시코 모기업(징크 나시오날)이 60년간 사용해 온 방식으로 매우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정이다.

산화아연을 생산하는 것에 많은 돈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공정이다.

GSDK가 도약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생산물 시작하고 이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점사업이다. 이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멕시코 엔지니어들이 해당 기술을 한국 기술자들에게 전수해야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료의 수급이다. 원료수급이 원활해진다면, 우리의 설비를 늘려 생산력을 두 배로 증대할 수 있다.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의 생산품인 산화아연을 여기 한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고, 나아가 한국을 통하여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조선화 아연 추출기로서 울촌산단이 가지는 매력점은 무엇인가?

울촌산단은 우리에게 많은 장점을 주었다. 첫째는 GFEZ를 만났다는 것인데, GFEZ는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한 물류인데, 광양항

과 가까운 원료의 수입과 최종 생산품의 수출 모두 매우 유리하다. 또한 인근에 포스코가 위치하여, 원료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이 편리하여 울촌산단에서 한국 어디론가 가기가 편리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사항은, 그리고 그 이유?

첫번째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 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작이 험난할 수도 있다. 안정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약 40명의 직원을 채용하였고, 머지않아 약 30명 정도의 직원을 더 채용할 생각이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GSDK가 속해있는 프로텍스 그룹은 사원친화적인 그룹으로, 사원들이 오랜 기간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멕시코 본사와 미국 지점에서도 직원이 입사하면 대체로 우리그룹과 긴 시간을 함께 일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를 위해 사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며, 공정하고 솔직하며 언제나 도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겠다. 또한 두 나라의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훌륭한 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겠다.

기업들을 위해 광양경제창이 기울여야 할 노력과 자원이 있다면?

GFEZ는 매우 친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회사를 대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왔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른 외국계 기업들이 유치되어 단지를 이루고 서로 도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



(왼) 김기호 인사팀 차장 (오) 배우중 환경안전모니터링 대리

임직원들과 속닥속닥

Q1 GSDK에 입하면서 가지는 가장 큰 자부심은?

A1 배우중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인 웰즈 킬본 공법이다. GSDK가 울촌산단에 입주하면서 아시아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이 기술은 기존보다 천배된 산화아연을 추출하는 기술로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김기호 GSDK는 한국 내 첫 번째 멕시코 투자 기업이다. 그런 기업에 들어와 인사 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자부심으로 다가온다.

Q2 조직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A2 배우중 외국계 회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기회가 많다. 업무를 하면서 꾸준한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 김기호 이전에는 인사업무에만 참여했었다. GSDK에 들어오면서 경영지원의 전반까지 배우게 되었는데 이 덕분에 회사에서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Q3 GSDK의 자랑할만한 기업문화가 있다면?

A3 배우중 수평적인 기업문화이다. 개인적인 말도 케이크를 들고 와 축하해주는 우리 기업의 친근함이 자랑할만한 문화이다.

김기호 GSDK는 직원이 다재다능함을 발휘해 자신의 업무에 책임감 있게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인 환경, 품질, 안전도 직원들의 재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Q4 회사에 바라는 점은?

A4 배우중 멕시코와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관리자와 직원들이 어울리며 서로간의 긴박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

김기호 멕시코와 한국 간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2014년 울촌산단에 들어선 GSDK는 오랜 경험과 진보된 기술로 국내 제강분진 재활용 산업의 중추적 역할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조한다



GSDK는 제강분진 전기로에서 나오는 전기로 분진(EAFD)을 취급하며, 이 분진은 처리 시스템에 맞는 아연 함유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드럭이나 분쇄기로 운송 합니다.



전남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배후 업무단지로 개발

물류·연구·개발 업무기능과 고품격 주거기능의 조화

광양복합업무·웰빙카운티단지

광양시 광양읍 일원에 조성되는
광양복합업무·웰빙카운티단지는
물류·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업무기능과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하는 고품격 주거기능을
갖춘 배후단지로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까지 민자 1조1694억 투입...
4.701km 규모로 조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산단 조성률이 60%이상을 달성하고 있고, 광양항, 읍촌1산단, 세풍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업무단지, 배후단지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일원의 4.7km²(142만평)에 세풍산단과 광양항을 지원할 수 있는 무공해 물류·연구·개발 관련 기업이 입주하는 업무기능과 산단 종사자 17천명을 수용하는 친환경 고품격 주거기능이 조화된 광양복합업무·웰빙카운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남해고속도로, 경전선, 국도2호선 등 접근성이 양호한 지리적 요충지로 택지개발의 최적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광양역과 접해 있고 10분 내의 근거리에 국가기반시설인 광양항, 광양제철소가 위치하고 있다.

현재 바로 인근에 기능성 바이오소재 유치를 위한 30km²(91만평) 규모의 세풍산업단지가 개발 중

에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단지 개발을 위해 2015년 12월 경제 여건, 사업성, 분양성 등을 종합 검토 후 규모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적의 개발범위를 지설했고 2016년 1월 광양시·건설업계 및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단지 개발유형과 국내공모 방향을 확정하여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사업시행자 국내공모를 추진하였다. 친환경 고품격 주거단지와 인근 산업단지·광양항 등을 지원하는 무공해 업무·물류기업이 입주하는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동측으로는 광양항, 광양제철소 등 국가기반시설, 서측으로는 순천 해룡산단, 신대·선월배후단지와 남측으로는 세풍·읍촌산단, 여수공항, 북측으로는 광양역, 광양읍, 남해고속도로와 연계되어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전남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시



미래에셋 금융그룹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투자 환영

여수시는 "글로벌 투자그룹인 미래에셋 금융그룹(박현주 회장)의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에 1조 1,000억원 투자를 30만 여수시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래에셋그룹과 전남도는 경도해양관광단지에 1조1천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과 콘도 등 시설 부지를 3,423억 원에 매입하고 향후 5년 동안 7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특급호텔, 수상빌라, 워터파크, 요트마리나, 해상케이블카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명품 리조트' 조성을 약속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미래에셋그룹의 이번 투자는 그동안 적지 않은 외국 자본의 경도 투자에 대한 여러 부작용을 걱정하는 지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여수시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전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투자가 경도 개발에 그치지 않고 돌산화태온과 돌산공원 그리고 여수밤바다까지 연계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미래에셋그룹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함께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정원 6차 산업화로 다시 한 번 비상을 꿈꾸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와 제1호 국가정원 지정에 이른 또 하나의 지역 성장 전략인 정원 6차 산업화로 다시 한 번 비상을 꿈꾼다.

순천시는 여타 도시에 비해 우위에 있는 정원산업 자원을 정원식물자원과 정원용품자원으로 분류하고 두 가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산과 재배의 1차 산업화, 제조와 가공의 2차 산업화, 판매와 유통, 교육과 연구, 문화와 관광 등 3차 산업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융복합적인 정원 6차 산업을 추진해 나간다. 먼저 1차 산업분야로 순천대표 정원수 10선을 발굴 선정해 국내 정원수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정원수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순천에서 생산되는 정원수 보호를 위한 철축 결속근 디자인을 개발한다. 판매 유통부문 산업화를 위한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건립, 직수와 웹구축을 통한 꽃과 나무 인터넷 모바일 시장 개설, 산업화 지원을 위한 '정원

지원센터' 건립, 취업 전문 인력 정원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순천시 가든스쿨도 운영한다. 특히, 꼬마 정원사 양성교육으로 컴퓨터 앞에서 노는 아이들을 정원으로 불러 자연과 함께 함으로써 젊은 층의 인구 유입기반을 마련하고, 정원교육의 산실로도 명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순천시

광양시

1700억 원 민간자본 유치로 리조트 조성

광양시가 민간자본 1,700억 원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리조트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느방이골 자연휴양림 연접지역 18만8천㎡에 대해 광



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조건부 의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느방이골자연휴양림 주변 관광자원인 섬진강, 어치계곡, 매화마을, 수어저수지 등과 연계되는 43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170병상 규모의 병원이 들어서는 리조트가 조성된다.

한편, 광양시는 백운유원지 내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 84억 원 유치에도 성공하여 유원지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되는 민간자본은 2020년까지 총면적 15,833㎡에 연면적 6천㎡ 규모의 숙박시설 3개동(객실 84실)과 글램핑 테라스, 바담전망대, 진입광장, 녹향마당 등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숙박시설과 유흥시설을 확보해 인근 지역으로 관광객이 유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그동안 부족했던 체류형 관광객을 광양으로 유치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동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폐철도시설물 활용 협약

하동군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와 경전선 하동구간의 폐철도시설물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전선 복선철도 개통과 함께 폐선되는 하동구간의 폐철도 4개 역사와 섬진철교 등이 공원·산책로·카페·주차장 등의 관광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다.

하동군은 북천역~양보역, 횡천역~하동역 등 2개 구간에 총면적 18.1km의 국내 최장 레일바이크를 설치하여 50대의 레일바이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횡천역~하동역 편도에는 레일바이크 승객의 이동을 돕는 토마스 열차도 운행된다. 그 외에도 공원, 산책로, 운동시설, 갤러리, 카페,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여 철도 주변의 관광명소와 연계된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하동군 관계자는 "폐철도 시설물에 대한 활용 협약으로 본격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2018년 말 완료할 계획"이라며 "다만 레일바이크는 내년 봄 북천 꽃양귀비 축제에 맞춰 운행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光陽

어느 가을 마주한
내 마음의 심표

광양

행하던 여름의 무더위가
한줄 쫓기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달리기 시작했다.
높고 푸른 광양의 하늘,
섬진강과 남해바다가 만나는
너른 풍경은 광양의 여유를
즐거기에 충분하다.

꺼지지 않는 광양의 밤, 구룡산 전망대
광양의 첫 이정표로 섰던 곳은 해발 473m
산 정상에 있는 구룡산 전망대. 구룡산 전망
대는 광양은 물론 순천·여수·하동·남해 일대
까지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특히 야경이 아
름다운 곳이다. 해가 누엿누엿 넘어가기 시
작한 즈음 출발한 구룡산 길은 강줄기처럼
구불구불 내어선 길 사이로 밀개 스민 초가
을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전망대 근처까
지 차로 오른 후 잘 덮여진 나무 데크를 걸어
올라가다 보면 이내 전망대를 마주하게 되
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노을빛을 이

금운 봉수대다. 구룡산은 그 이름에서 드러
나듯이 실제 봉수대가 있었던 곳이다. 광양
은 그 역사적 가치를 살려 개화하는 대화
를 담은 봉수대를 설치하였는데, 빛과 철을
소재로 한 봉수대는 빛의 도시·철의 도시 광
양의 가치를 응축하고 있다. 전망대에서 바
라본 광양은 아름다웠다. 산줄기를 따라 시
선을 옮기면 오일조일 들어선 광양 시내가
언제 눈에 들어온다. PG5CO 광양제철소의
광양항, 광양-여수를 잇는 이순신 대교와 산
엄단지가 화려한 불빛을 비추어내며 살아있
는 도시 광양을 말하고 있다.

구룡산 전망대 - 전남 광양시 용장길 369-155 ☎ 061-797-2731





습 전남 광양시 광양읍 해전로 7/1
☎ 061-762-4853

철의 도시 문화를 만나다. 광양 장도박물관
철이 풍부한 도시 광양은 먼 옛날부터 뛰어난 품질의 장도로 이름난 곳이다. 수백,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광양의 장도는 지켜나가야 할 문화유산이자 아름다운 예술품이다.

광양읍 내에 자리한 광양 장도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장도 박물관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 60호 장도장인 **故박용기** 선생의 평생의 흔이 담긴 영원의 공간이다. 이른 아침 방문한 장도박물관은 차분하고 정적인 외관으로 엄숙한 느낌마저 드는 곳이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니 예상과는 사뭇 다른 화려한 겹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총면적 800여 평에 이르는 광양 장도박물관은 1층은 세계 각국 도

검과 영화 속에 나올법한 화려한 판타지검, 현대 작가의 작품으로 2층은 구석기 시대의 돌칼부터 섬세하게 조각되어 아름다움을 뽐내는 장도장인의 작품까지 한국 칼의 역사 발달 과정을 한눈에 살피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다. 다양한 장도 작품은 실로 놀라웠다. 부녀자가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몸여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장도는 왕부티 장군, 선비,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실로 많은 이들에게 폭넓게 사랑 받아온 예술품이었다. 화려하고 섬세한 문양과 사용된 다양한 재료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장도박물관은 관람은 물론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철의 도시 광양의 무구한 역사를 지켜내고 있다.



가을의 맛과 정취를 담은 서천면
광양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것이 있다. '천하일미 마로화적'이라는 수식이 따라 붙는 광양 불고기다. 광양 불고기는 일게 저민 고기에 특색 있는 양념과 은은한 참숯향이 어우러져 풍부한 맛을 자랑한다.
서천면 인근 '광양불고기 특화거리'에는 9개의 불고기 전문 업소 비롯해 약 40여 개의 음식점이 들어서 있다. 황동석식 위에서 직화로 구워낸 광양불고기는 아들아들 고소하고 달큰한 맛이 배어있다. 아무리 먹어도 질리는 맛이 없다. 씹을수록 풍부한 맛이 배어

니온다. 광양의 맛을 즐기고 나오니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가 3만 평 서천면 둔치에 만발하며 한껏 농익은 가을 풍경을 그려내고 있었다. 스민 가을 바람을 느껴며 서천면 코스모스길을 걸어본다.
잘 정비된 산책로 주위로 하늘하늘 흔들리는 코스모스 꽃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고 곳곳에 세워진 허수아비가 각자의 개성을 뽐내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산책로를 걷다보면 꽃밭 한켠을 관통하는 길도 나 있는데 펼쳐진 꽃밭 사이사이로 불쑥 올라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웃음을 자아낸다.



습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천면 일원



습 윤동주 유고 보존 가옥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249



아름답고 소박한 감촌마을, 망덕포구

성진강의 끝자락과 너른 남해 바다가 만나 뒤섞이는 곳에 위치한 망덕포구. 망을 보기에 알맞은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진 망덕(望德)은 한려수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이다. 포구 해안을 따라 시원스레 뻗어있는 데크로드를 걸으며 고즈넉한 풍경을 감상해본다. 데크 길을 걷다 보면 펄떡이는 전어 조형물이 보인다. 그 옆 고기잡이배 위에서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들의 분주한 몸짓은 전어의 계절 가을이 왔음을 알린다. 신라기를 지나 통통하게 살이 오른 전어의 고소한 내음은 9월 말 열리는 전어축제의 기대감을 더하게 한다. 평화와 고요의 공간 망덕포구를 걷다보면 넓은 간을 한 채를 마주하게 된다. 오랜 세월 성진강 바람을 이겨낸 이 일본식 건물은 윤동주 시인이 생전에 썼던 원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역시 온전히 지켜내었다. 유리창 너머 안을 들여다보면 시인의 원고가 숨겨져 있던 마룻바닥을 그대로 볼 수 있다. 가옥 주변으로는 윤동주 시인의 시가 함께 걸려있어 감촌마을 넓은 집에 고즈넉한 감성을 더한다.

Festival

글 편집실

— 풍요로움 가득한 가을의 정취를 담은 축제 속으로



10.1~10.2 여수 여자만갯벌 노을체험



10.6~10.9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



11.18 ~ 11.27 순천 자연환경 국제 아트페스티벌

10.29 하동 지리산 회남재 걷기 대회



여수 여자만갯벌 노을체험

길게 뻗은 해안선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여자만은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다양한 생물종에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이다.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여자만의 아름다운 갯벌과 환상적인 노을을 배경으로 개매기 체험, 바지락 캐기, 먼초고기잡이 등의 체험행사와 다채로운 음악 공연으로 일차케 꾸며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전한다. 축제기간 중에는 여수시청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 관광객에게 편의도 제공한다.

☎ 2016.10.01(금)~10.02(토) / 2일간

📍 여수시 소림면 사곡리 바닷가 일원

☎ 061-690-2602 (여수여자만갯벌노을축제추진위원회)

🌐 <http://tour.yeosu.go.kr>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

오는 가을 광양의 맛과 풍경,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가 개최된다. 10월 6일부터 4일간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수년간 광양불고기로 사랑을 받아온 지역 업체에서 질 좋은 광양 숯불구이를 제공해 천하일미 마로회적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축제는 불고기 특화거리를 주 무대로 서천변 코스모스 산책로, 음악분수의 수려한 경관이 어우러져 맛뿐만 아니라 체험과 공연, 불거리가 풍성한 문화축제로 꾸며진다.

☎ 2016.10.06(목)~10.09(일) / 4일간

📍 광양읍 서천면 서천체육공원 일원

☎ 061-797-4901(광양읍사무소)

🌐 www.gwangyang.go.kr/tour_culture

하동 지리산 회남재 걷기 대회

가을빛이 잔잔하게 스며든 아름다운 고장 알프스 하동에서 '2016 지리산 회남재 숲길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걷기코스는 회남재 정상 회남정(回南亭)을 중심으로 약양 등촌리 청학선사 방향 8km, 목계초등학교 방향 편도 10km, 삼성궁에서 회남정을 돌아 다시 돌아오는 왕복 12km 코스로 진행된다. 오는 10월 높은 하늘과 색색깔 다채롭게 물든 낙엽이 아름다운 지리산 기슭 회남재 숲길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자.

☎ 2016.10.29(토) / 1일간

📍 하동 회남재일원

☎ 055-880-2052-4 (하동 문화관광실 축제담당)

🌐 <http://tour.hadong.go.kr>

순천 자연환경 국제 아트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 순천에서 자연환경 국제 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순천의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조각작품, 시각예술 작품, 영상미디어와 미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된다. 축제는 순천만국가정원 외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어 순천 전체가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는 하나의 큰 예술 공간이 될 것이다. 생태와 문화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도시 순천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해보자.

☎ 2016.11.18(금)~11.27(일) / 10일간

📍 순천만국가정원, 순천시 일원

☎ 061-749-5567 (순천시 관광진흥과)

🌐 www.suncheon.go.kr/tour



호감형 직장인으로 거듭나는 업무예절 팁

한 매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무 통화 중 불편한 경험을 가진 직장인이 97.2퍼센트로 나타났다. 업무 태도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호불호를 결정하는 경우도 86.1%의 직장인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응답은 업무 태도가 내 이미지와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나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그만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전화&이메일 예절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④ 전화를 주고받을 때

정확하고 간결한 용건

전화는 정확하고 간결해야 한다.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용건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도록 하자. 관련 자료나 서류를 갖춰놓고 통화해 임한다면 더 정확하게 용건을 전달할 수 있다.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통화를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힌 후 상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전화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용건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하자. 통화가 끝난 뒤에는 "고맙습니다." 같은 마무리 인사를 건네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을 찾는 경우에는?

상사나 동료로 찾는 전화가 걸려온다면 먼저 수신자에게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연결해줘야 한다. 이때 전화를 받게 될 동료에게 상대방이 누구인지, 용건은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전화를 끊는 것도 순서가 있다

전화는 건 사람이 먼저 끊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윗사람이나 고객과의 통화일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먼저 걸었든 상대방에서 먼저 끊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Tips

전화예절 포인트

- 신속성: 용건은 간단히
- 친절성: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
- 전문성: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통화업무 중 가장 불편했던 순간은?

- 1위 본인을 밝히지 않고 대뜸 용건부터 물을 때 (28.2%)
- 2위 전화받는 사람마다 '담당부서를 모르겠다'며 계속 전화를 돌릴 때 (20.3%)
- 3위 불친절한 목소리나 말투 (19.5%)
- 4위 반말 (15.4%)
- 5위: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툭 끊을 때 (8.7%)



④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제목은 메일의 얼굴

제목은 어떤 내용이 담긴 것인지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좋다. 메일 제목만 보고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키워드를 제목으로 선정하자.

정보는 명확하게

내용은 이메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한 후 내용을 두괄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수인 경우에는 번호를 매겨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명은 이메일에 담긴 명함

이메일 마지막 부분에는 이름,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다. 이메일을 읽는 상대가 전화나 팩스를 보내고 싶을 때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메일의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하면 매번 적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마지막 1분 활용하기

메일을 모두 작성했다면 바로 전송 버튼을 누르지 말고 검토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 내용을 훑 살펴보고 문맥의 흐름이 어색하지 않은지, 오타는 없는지 살펴보고 전달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받는이의 메일주소나 첨부문서도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만은 하지말자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이나 줄임말 등은 회사의 이미지와 요청사항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역할을 한다. 메일의 내용을 부드럽게 만드는 최소한의 사용은 괜찮겠지만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

01 업무로 인한 통화 중 불편한 경험이 있나?

02 업무 태도를 보고 상대방에 대한 호불호를 결정할 적이 있나?

03 업무 태도가 실제 업무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호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잘 알고 활용하면 유익한 다섯 가지 보험 서비스를 소개한다.

— 알아두면 돈 버는 유익한 보험서비스



불필요한 중복보험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이 생명보험사 및 손해 보험사에 가입한 전체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방법 ①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는 즉시 확인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 시에는 다음날 오후부터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준비하세요 ① 방문신청 - 신분증
인터넷 신청 -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 폰 인증 필요

자동차 사고 시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나 수리비 과다청구를 방지하려면?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 서비스를 통해 대물배상 보험금의 세부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 ① 대물배상으로 지급된 8대 기본 항목은 '보험금 지급내역서'에 구분·기재하여 휴대폰 문자로 필수 통지된다. 다만 수리비 세부 내역은 선택 통지사항이므로 보험회사 고객센터 또는 보상담당자에게 수리비 세부 내역을 별도 요청하여야 한다. 보험사, 정비업체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 및 수리비 청구를 방지할 수 있다.



만성질환 보유자도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

그동안 유병자는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된 조건으로만 보험가입이 가능했지만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으로 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뇌졸중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최근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한 적이 없으면 쉽게 유병자를 위한 보장성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용 방법 ① 16년 상반기 중 16개 보험사에서 유병자보험을 신규로 출시했다. 질병 이력 및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보험 판매처에 문의해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이 있는지 확인 후 가입하면 된다.

해외 체류 시 보장받지 못하는 실손의료보험 관리하는?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보장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납입 중지나 시후환급이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중지기간 중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며, 중지기간 종료 시 실손의료보험은 자동으로 부활된다.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사에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면 시후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 ①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험료 납입 중지 및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해외여행보험 원하는 혜택만 제공받을 수 없나요?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질병이력이 있어 질병보장부분은 가입이 거절 되더라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 손해 등의 보장은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장이 중복되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치료보장'을 제외하고 가입할 수 있다.

이용 방법 ① 보험대리점(공인 포털), 설계사 및 인터넷 등 모든 판매처 등에서 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여수 화양지구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어요!



탐나는 정보가 가득,

sns

<http://webzine.gfez.or.kr>

GFEZ 저널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GFEZ 저널을 읽고 느낀점이나 독자의 솔직한 소감을 들려주세요. 이 코너를 통해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물론 향후 편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칼럼이 좋았어요!

GFEZ HOT Topic 해룡산업단지 뿌리산업메카...



광양만권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무척 좋았어요. 특히 뿌리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어 향후 교육용 자료로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역 관광지 소개와 축제 소개도 도움이 됐어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숨은 지역 이야기도 담아주세요.

우아미 독자

Festival 푸른 여름을 담은 축제속으로



전 여행을 좋아해서 여름축제 코너를 열심히 봤습니다. 광양에는 소고기만 맛있는 줄 알았는데 전어 축제도 있었군요. 올가을엔 집나간 매리리도 돌아오게 하는 전어를 먹으러 광양에 가볼까 합니다.

유진식 독자

QR코드로 참여하는 Quiz

이제 QR코드를 찍으면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퀴즈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퀴즈 참여 및 의견을 남겨주신 독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전달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방법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하시면 퀴즈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광양경제자유구역 웹진 주소(<http://webzine.gfez.or.kr>)를 입력해 비밀번호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응모기간 2016년 11월 11일 까지

당첨자 선물

1등 (1명)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2등 (2명)
도시문화상품권 3만원권

3등 (5명)
스타벅스 음료 기프트콘

지난호 당첨자

1등 김 * 주(7296)

2등 우 * 미(3046), 유 * 서(0601)

3등 전 * 홍(4618), 김 * 현(8025), 최 * 숙(4600)
신 * 정(2394), 김 * 명(1063)

신산업·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다양한 비즈니스기회



- 5개 지구 21개 단지(77,69㎢)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산업지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물류산업-공업지구
- 제조산업-울촌지구
- 주거산업-신덕지구
- 복합산업-하동지구
- 관광산업-화양지구

최적의 산업인프라



· POSCO 광양제철소



- 어수국가산업단지
- 풍부한 산업단지 (전국산업단의 13.52%~189.0㎢) 보유
- 저렴한 지가로 즉시 입주가능한 산업단지 확보

**동북아 비즈니스
투자 ① 번지**

www.gfez.go.kr

편리한 교통인프라



- 세계적인 국제항만-광양항 (2015년 약272만톤 처리)
- 1시간권 항공시설-4개 보유 (광주, 여수, 사천, 무안)
- 수도권 연결 KTX (여수-순천-서울)
- 5개의 고속도로 연결 (수도권 3시간대 접근 가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방사업시행자 공모
광양복합업무·웰빙카운티단지

- 위치 :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일원
- 사업면적 : 총 4,705㎢
- 광양복합업무단지 : 3,583㎢
- 웰빙카운티단지 : 1,122㎢
- 고급 휴양형 주택단지
- 친환경 교통적 주거·업무단지
- 주거를 지원하는 상업·편의시설
- 산단 지원 무공해 연구·물류시설

관광·레저, 생활환경



-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
- 3개의 국립공원과 100km이내 530만명 배후시장확보
-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토지가격과 수용권 부여



- 정주여건을 위한 주거, 교육, 의료, 레저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지원

투자상담에서 사업개시까지
Non-Stop 서비스

업종에 맞는
입지선정 지원

시장조사 및 기업
협력마케팅 지원

경영지원
보조금 지원